

삿포로의 ‘핑크빛’ 골든위크

안녕하세요, 삿포로시 미국 국제교류원 리아 클래스입니다. 이번엔 삿포로의 봄을 소개하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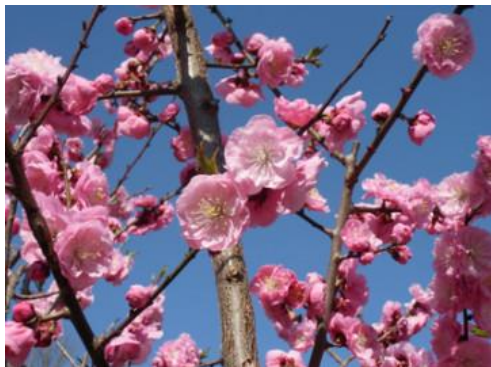
일본의 봄철에는 휴일이 많습니다. 특히 4 월 하순~5 월 상순에는 ‘쇼와의 날,’ ‘헌법기념일,’ ‘어린이날’ 등 연일 휴일이 계속되는 대형연휴인 ‘골든위크(황금연휴)’가 있습니다. 그런데 홋카이도의 골든위크는 금빛이 아닌 핑크빛으로 물듭니다.

혼슈에서는 골든위크 시기라하면 일본을 대표하는 벚꽃이 이미 지고 없지만, 홋카이도에서는 때마침 봄이 시작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초목이 싹트고 남아있던 눈이 녹아 북쪽의 섬은 화사한 벚꽃색으로 물듭니다.

이 시기의 홋카이도는 거리 이곳저곳에서 벚꽃을 볼 수 있는데, 특히 일본인에게 사랑받는 오락 중 하나인 ‘하나미(花見, 꽃놀이)’는 삿포로의 마루야마 공원에서 성행합니다. 시민들은 경치를 즐기며 벚나무 아래서 홋카이도의 명물이자 꽃놀이 풍습이기도 한 ‘징기스칸’을 먹습니다. 징기스칸은 램(어린양)과 머튼(성체양) 양고기에 채소를 듬뿍 곁들여 취향에 맞는 소스와 함께 즐기는 BBQ 요리입니다. 구워먹는 요리라 연기가 나기는 하지만 날씨 좋은 봄날에 팔랑팔랑 떨어지는 벚꽃잎을 보면서 징기스칸의 맛있는 냄새를 즐기는 것은 홋카이도에서만 가능한 특별한 체험입니다.



마루야마 공원 옆에 위치한 ‘홋카이도신궁’에는 1,400 그루의 벚나무와 250 그루의 매화나무가 있어 1900 년경부터 쪽 인기가 많은 꽃놀이 명소입니다. 신궁에서 판매하는 매실주 ‘신궁의 매실’과 꽃잎 차 ‘신궁의 벚꽃’을 음미하면서 봄을 맞이하는 것은 어떨까요?



‘매화’는 벚꽃에 비해 세계적으로 유명하지는 않지만 벚꽃만큼 아름답고, 홋카이도에서는 벚꽃과 같은 시기에 핍니다. 삿포로에서 매화나무 숲을 보기에 가장 유명한 장소는 히라오카 공원일 것입니다. 히라오카 공원에서는 매년 기간 한정 매실 아이스크림, 매실 소바 등 매실을 사용한 상품을 판매하는 ‘매실 축제’가 열립니다. 벚꽃과 마찬가지로

매화도 개화 후 2 주가 지나면 만개하는데, 덧없게도 만개한 꽃을 볼 수 있는 것은 거의 하루뿐입니다. 이 기간에만 체험할 수 있는 매화의 달콤한 향기를 즐기러 히라오카 공원을 걸어봅시다.

이처럼 벚꽃과 매화는 대체로 골든위크 즈음해서 피기 시작하지만 반드시 봄철의 대형연휴와 맞물리지는 않습니다. 삿포로에 피는 세 종류의 벚꽃(산벚나무, 왕벚나무, 천엽벚나무)는 지역에 따라 5 월 말까지 즐길 수 있고, 작년의 매화 만개 시기는 골든위크가 끝난 무렵이었습니다. 때문에 골든위크가 끝난 한산한 시기에도 경치를 즐길 기회가 많습니다. 부디 봄철의 삿포로를 방문해 이 기간에만 즐길 수 있는 핑크빛 시즌을 즐겨주세요!

삿포로의 봄을 더 알고 싶은 분께서는 하단의 링크를 참고해주세요.

<http://www.sapporo.travel/choose/keywords/recommendations-for-spring-sightseeing-in-sapporo/>

히라오카 공원(일본어 사이트)

<http://hiraoka-park.jp/>